

패션디자인에서 기후변화 적응의 유형과 특징

장 남 경

한세대학교 디자인학부 섬유패션디자인전공 부교수

요 약

본 연구는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패션디자인의 유형과 특징을 분석하여 패션디자인에 있어서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개념적 기초를 마련하고, 패션상품 개발 시 기후변화 적응방법과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론적 배경으로 기후변화의 개념과 현황, 그리고 대응에 대해 알아보고, 기후변화와 관련된 패션디자인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실증연구를 위해 최근 5년 (2011 S/S ~ 2015 F/W) 동안 뉴욕, 밀라노, 파리, 런던 컬렉션에 발표된 기성복을 고찰하여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343점의 디자인을 자료로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패션디자인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유형과 특징을 도출하였는데, 유형은 상위개념으로 기능성, 레이어드, 시즌리스, 크로스 오버로 분류하였다. 기능성과 시즌리스는 각각 3개의 하위개념으로 나뉘는데, 기능성의 하위개념은 기능성 디자인, 기능성 소재, 기능성 액세서리로, 시즌리스의 하위개념은 시즌리스 디자인, 시즌리스 소재, 시즌리스 컬러이다. 특징을 요약하면, 기능성은 스포츠/아웃도어 웨어에서 유래한 소재와 디자인, 디테일들이 일상복으로 대중화되었으며, 레이어드는 여러 품목들의 비율과 소재의 컬러 및 텍스처 대비를 통하여 계절과 기후에 따른 용도를 확장할 수 있었다. 시즌리스는 컬러, 소재, 디자인 활용에 있어 시즌을 초월하는 디자인들을 볼 수 있었으며, 크로스 오버는 하나의 품목 또는 스타일링에서 여러 스타일이 혼재함으로써 다양한 기후에 유연하게 착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연구결과와 제한점을 토대로 시사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기후변화, 기후변화 패션, 기후변화 적응, 기후변화 적응 패션디자인

I. 서 론

유럽의 비영리단체 DARA와 기후 취약국 포럼 (Climate Vulnerable Forum)이 공동으로 펴낸 보고서에 의하면 2010년 한 해 동안 기후변화가 초래한 경제적인 피해는 전 세계 GDP의 1%에 해당하는 7천억 달러 규모다. 여기에 더해 대기오염에 따른 질병 증가 등 탄소 집약경제(carbon-intensive economy)가 유

발한 피해는 세계 GDP의 약 0.7%이다. 이 두 가지를 합하면 피해 규모는 약 1조 2천억 달러 규모가 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피해규모가 갈수록 커질 것이라는 사실이다.¹⁾

‘기후변화’란 수십 년 또는 그 이상 지속되는 기후 또는 변동성이 평균적 상태에 대해 통계적으로 중요한 변동을 말한다.²⁾ 기후변화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원인으로는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이 있다.

본 논문은 2013년도 한세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연구임.

교신저자: 장남경, namkyungj@yahoo.co.kr

접수일: 2015년 7월 20일, 수정논문접수일: 2015년 8월 23일, 게재확정일: 2015년 8월 26일

자연적 요인은 화산분화, 태양활동의 변화와 같이 외적으로 야기된 변화뿐만 아니라 대기권, 수권, 빙권, 지권, 생물권과 같은 기후시스템 요소의 변화와 요소 간의 상호 작용을 말한다. 인위적 요인으로는 인간 활동, 특히 공장이나 가정에서의 화석연료 연소와 생물체의 연소 등으로 인한 온실가스 증가를 들 수 있다.³⁾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 현상이므로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평균기온 상승, 집중호우 증가, 해수면 상승, 아열대성 기후로 변화 등의 부정적 영향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 영향들을 개선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기후변화를 완화(mitigation)하는 한편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발전기회를 최대화하여 기후변화에 적응(adaptation)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완화에 중점을 두었다면, 최근 적응도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주체도 다양해지고 있다. 정부의 환경관련 부처뿐 아니라 기업과 개인도 이러한 노력에 필요성을 느끼고 동참하고 있다. 기후변화 적응은 기업에게 닥쳐올 위기를 경감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⁴⁾ 따라서, 기업과 정부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마련을 통해 신사업분야를 창출하고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기회로 활용하여야 한다.⁵⁾

제조업 중에서는 식음료, 가전, 패션이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이다. 특히 패션산업은 기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여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옷을 입는다는 옷의 가장 근본적인 기능 때문이다. 패션상품은 날씨와 기후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욕구와 감정이 달라지므로 어떠한 제품을 개발하는 것 뿐 아니라 언제 출시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후는 의류 및 액세서리 매출에 있어 주요 변수이므로 몇몇 패션기업들은 기후의 변화를 분석하여 상품기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TFT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⁶⁾ 우리나라뿐 아

니라 패션산업은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인해 사고 전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방법으로써, 실제 또는 예상되는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을 줄이고 기후변화를 기회로 이용하는 기후변화 적응전략을 마련하여야 한다.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투자는 경제, 인도주의, 환경 모든 면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시작이 빠를수록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이다.⁷⁾

본 연구는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패션디자인의 유형과 특징을 분석하여 패션디자인에 있어서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개념적 기초를 마련하고, 패션상품 개발 시 기후변화 적응방법과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패션기업에는 상품기획의 정확도를 높이고, 소비자에게는 기후변화 적응과 완화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패션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자원의 활용과 환경의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기후변화 현황 및 대응

기후변화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날씨'는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기온, 바람, 비 등의 대기 상태를 말하며, '기후'는 수십 년 동안 한 지역의 날씨를 평균화한 것이다.⁸⁾ 기후는 위도, 바다로부터의 거리, 식물, 산의 존재 또는 다른 지리적 요소에 의존하기 때문에 장소에 따라 다양하며, 또한 시간에 따라서도 다양하다. 즉, 계절과 계절, 일년주기, 10년 주기 그리고 빙하 시기 같은 시간 규모에 따라 다르다.⁹⁾

기후가 일정한 패턴으로 유지되지 않고 평균적인 분포를 벗어나는 기후변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¹⁰⁾ 구체적인 현상으로는 한파, 폭설, 폭염과 열대야, 홍수, 수온과 해수면 상승, 태풍, 평균기온 상승, 가뭄,

이상기후 패턴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윤진 외 (2015)¹¹⁾의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관련용어의 빈도수 및 해당 용어가 출현한 기후변화 뉴스 기사를 추출한 후 기후와 함께 나타났을 때 의미가 있는 용어를 추출하였다. 그 결과 물, 에코시스템, 공기, 가뭄, 토양, 환경, 홍수, 폭우, 기후, 재앙, 기온, 이상고온, 습도, 이산화탄소가 기후변화와 관련된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라고 하였다. 이러한 기후변화 현상에 대해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5차 보고서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의 주요 위험 요소들로 해수면 상승, 연안 홍수 및 폭풍 해일로 인한 생명과 재산피해, 홍수로 인한 재해 및 질병, 사회기반시설과 핵심 공공 서비스의 와해, 극한의 장기간 폭서로 인한 취약 도시인구의 사망, 질병 및 기타 재해 위험, 농업생산성 저하 및 식량 불안정 등을 지목하였다.¹²⁾ 이렇듯 기후변화는 자연생태계를 시작으로 경제, 환경, 생태, 보건,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쳐 전 세계인의 생활과 문화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100년간 (1911년~2010년) 연평균 기온이 1.8℃ 상승하였는데, 현재 추세로 감축 없이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면 2050년까지 3.2℃가 상승할 것이라고 한다. 내륙을 제외한 전국이 아열대 기후로 변하고 있으며, 계절의 길이도 달라져서 서울을 기준으로 할 때 2월말에 봄이 시작하여 10월초까지 여름이 이어져 봄과 여름은 한 달 정도 길어지고, 겨울은 한 달 가량 짧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폭염은 현재 연평균 9일에서 2070년에서 2099년에는 64.7일로 7.2배, 열대야는 4일에서 59.9일로 15배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강수량은 지난 100년간 17% 증가하였는데, 2050년까지 15.6%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특히 남해안과 서울 경기 지역의 증가폭이 크다. 연평균 집중호우일도 현재 2.20일인데 21세기 말(2081년~2100년)에는 6일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¹³⁾

기후변화 문제는 개인이나 국가의 문제를 넘어 전 세계적인 중요한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정책을 세우

고 있는데, 크게 완화(mitigation)와 적응(adaptation)대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¹⁴⁾ 완화대책은 각 가정과 학교 등 기관이나 건축물, 자동차 등에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배출되는 가스의 양을 줄이도록 하는 동시에 폐자원을 에너지로 만들고 신재생 에너지를 보급하는 것이다. 한편 적응대책은 실제 또는 예상되는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을 경감하고 기후변화의 결과로 발생하는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는 행동이나 과정을 포괄한다.¹⁵⁾ 즉 기후변화 영향력에 대한 자연 및 인간 사회의 적응을 말하며, 기후변화에 따른 현 상황에 대하여 긍정적인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인명 또는 재산상의 손실 등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때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¹⁶⁾ 예를 들어, 폭염·대기오염 등으로 부터 국민 생명 보호하고, 방재와 사회기반시설 강화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후변화를 감시, 예측하여 적응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기후변화 적응 신사업과 유망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교육과 홍보를 통한 대내외 적응 및 소통을 강화하는 기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¹⁷⁾

2. 기후변화와 패션디자인

최근 이상기후 현상이 잦아지고 날씨의 예측이 어려운 상황은 이에 민감한 패션산업에도 연구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였다. Kim and Johnson(2007)¹⁸⁾은 미래 패션산업에서 필요한 교육과정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디자인 분야에서 functional 또는 practical 디자인이 미래 가장 필요한 교육내용이라고 보고 하면서 그 예로 신체의 체온을 유지시켜주는 climate-controlling jackets을 들었다. Jacob(2007)¹⁹⁾은 세계적으로 기후의 변화는 인간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고 섬유·의류산업에도 공황상태를 몰고 올 것이라고 하였다.

패션디자인이나 산업 분야에서 기후변화와 관련

하여 소수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현영과 박혜원(2009)²⁰⁾은 특허와 컬렉션을 통해 다기능패션디자인 사례를 조사하였는데, 기후변화 및 환경의식 대응을 위한 다기능 디자인 요소로서 최소한의 자료 사용, 수공예 기법의 느린 디자인, 기후 및 환경 변화 대처를 위한 다기능으로 분석하였다. 배정민(2008)²¹⁾은 기후 변화에 따른 환경과 산업 전반의 사례를 분석하고 또한 2000년 이후 각 연구소에서 제시되고 있는 패션 경향과 컬렉션에서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시즌리스 레이어드 스타일과 4계절 내내 입을 수 있는 첨단 소재, 가벼우면서도 보온성을 가진 기능성 소재를 기후변화에 따른 패션경향의 특징으로 분석하였다. 특정 아이템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도 있었다. 손미영(2012)²²⁾은 패션시스템을 기초로 기후변화에 따른 문화적 심벌과 가치의 변화를 고찰하였는데 기후변화로 인해 시즌리스, 다기능, 지속가능성이라는 새로운 문화적 심벌

과 가치가 형성되었다고 하였다. 이민선(2011)²³⁾은 패션업계의 이슈인 시원한 여름철 정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2011년 S/S 컬렉션에 나타난 노자켓, 노타이 차림의 남성복 셔츠 디자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아우터의 라인을 활용한 셔츠, 옆선, 진동선, 다크, 트임, 끝단 등의 구성선을 활용하여 장식성을 더하는 디자인, 브레이드나, 단추, 지퍼 등 트리밍을 활용하여 셔츠의 장식성을 보완하는 디자인, 캐주얼웨어에 사용되던 그래픽을 도입하여 장식성을 더한 디자인이 있다고 하였다. 배정민(2011)²⁴⁾은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아웃도어 웨어의 유형에 대해 연구하였다. 기능확장 유형은 간단한 조작, 대체물 이용, 형태적 변형, 환경적 조건에 반응하는 기능 확장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선행연구들의 분석대상과 기후변화에 따른 패션디자인 유형은 <표 1>과 같다.

〈표 1〉 기후변화와 패션디자인에 관한 선행연구

연구자	제목	분석대상	기후변화에 따른 패션디자인 유형
이현영, 박혜원 (2009)	다기능 패션디자인에 관한 연구 - 기후변화 및 환경인식을 중심으로-	- 다기능 의류 - 2000년 이후 문헌고찰	① 최소한의 자료 사용 ② 수공예 기법의 느린 디자인 ③ 기후 및 환경 변화 대처를 위한 다기능
배정민 (2008)	기후변화에 따른 패션경향에 관한 연구	- 2000년 이후 패션연구소에서 제시한 패션경향과 컬렉션	① 시즌리스 ② 레이어드 스타일 ③ 4계절 내내 입을 수 있는 첨단 소재 ④ 가벼우면서도 보온성을 가진 기능성 소재
이민선 (2011)	기후변화에 따른 남성셔츠 디자인 개발 사례 연구	- 노타이 남성셔츠 - 2011 S/S 컬렉션	① 아이템의 전환 ② 구성선을 활용한 장식 ③ 트리밍을 활용한 장식 ④ 그래픽을 활용한 장식
배정민 (2011)	기후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아웃도어 웨어 디자인에 관한 연구	- 아웃도어 의류 - 2000년 이후 컬렉션	① 간단한 조작 ② 대체물 이용 ③ 형태적 변형 ④ 환경적 조건에 반응하는 기능 확장
손미영 (2012)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on the fashion industry in Korea	- 문헌고찰	① 시즌리스 ② 다기능 ③ 지속가능성과 그린 ④ 레이어드 룩

Ⅲ. 연구 내용 및 방법

연구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이론적 배경으로 기후변화의 개념과 현황, 그리고 각 분야의 대응에 대해 알아보고, 기후변화와 관련된 패션디자인 선행연구를 고찰한다. 실증연구를 위해 최근 5년(2011 S/S~2015 F/W)동안 뉴욕, 밀라노, 파리, 런던 컬렉션에 발표된 기성복을 고찰하여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디자인을 자료로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하였다. 첫째, 컬렉션 참가 디자이너의 수가 방대하기 때문에 보다 상세한 분석을 위하여 패션정보기관 중 퍼스트뷰코리아닷컴(www.firstviewkorea.com), 스타일닷컴(www.style.com), 삼성디자인넷(www.samsungdesign.net)에서 파워 디자이너와 지역별 컬렉션 리뷰를 참고하여 선행연구결과에서 분류된 기후변화에 따른 패션디자인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디자이너를 각 시즌별로 남성복 10명, 여성복 20명씩 총 30명을 선정하였다. 둘째, 선정된 디자이너의 해당 컬렉션 전체를 면밀히 관찰하여 자료로 선정하였는데,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후, 환경, 기능, 레이어드, 시즌리스 등 선행연구에서 분류된 유형이 언급된 디자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다. 셋째, 특정 디자이너에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디자이너별로 한 시즌 당 5장으로 제한하였다. 넷째, 한 디자인에서 여러 가지 기후변화 적응방법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가장 중요하게 보이는 한 가지를 선택하여 분류하였다. 다섯째, 연구자 외에 패션디자인 전공 대학원 박사과정 2인과 국내 패션브랜드 디자인 실장 1인이 연구목적에 숙지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자료의 검증과정을 거쳐 이의가 제기되는 디자인은 자료에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 총 343점의 디자인을 자료로 선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표 2>와 같다. 자료의 분포를 보면 남성복(47%)보다 여성복(53%)이 조금 많은데 컬렉션에 참가하는 여성복 디자이너의 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시즌별로 선정한 여성복(66.6%)과 남성복(33.3%)의 비율을 고려하면 오히려 남성복에서 기후변화 적응 디자인의 빈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봄/여름 보다 가을/겨울의 비중이 높은데 이는 추위에 의복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는 계절적 특성으로 짐작된다. 선정된 자료는 선행연구를 기초로 연관관계, 분석과 분류, 군집화 단계를 거쳐 분석하였다. 선행연구가 많지 않고 몇몇 선행연구들은 특정한 품목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선행연구 결과를 분석의 틀로 활용하되 자료 분석과정을 거쳐 보다 정교한 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표 2> 분석 대상 자료

년도	시즌	남	여	합계
2011	봄/여름	11	13	24
	가을/겨울	9	18	27
2012	봄/여름	19	12	31
	가을/겨울	23	13	36
2013	봄/여름	17	14	31
	가을/겨울	18	22	40
2014	봄/여름	17	22	39
	가을/겨울	16	25	41
2015	봄/여름	11	19	30
	가을/겨울	21	23	44
합계		162	181	343

IV. 패션디자인에서 기후변화 적응의 유형과 특징

1. 패션디자인에서 기후변화 적응의 유형

수집된 자료의 분석 결과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패션디자인의 유형은 기능성, 시즌리스, 레이어드, 크로스 오버의 4가지 주요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분류된 유형별 자료의 빈도는 <표 3>과 같다.

1) 기능성 (Functionality)

기능성은 한파, 폭설, 폭우, 폭염과 열대야 등 기후로 인해 발생하는 극한 상황 속에서 신체를 보호하는 기능을 강화한 패션이 포함된다. 기능성과 관련해서는 기능성 디자인, 기능성 소재, 그리고 기능성 액세서리의 3가지 하위테마로 분류가 가능하였다.

기능성 디자인은 먼저 품목과 디테일에 기능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남성 정장의 경우 민소매로 디자인하여 시원한 비즈니스 룩을 제안하거나, 추위에 가장 취약한 브이존(V-Zone)에 자켓과 동일한 덧단을 대어 보온효과를 향상시키는 것 등이다. 그 외에도 야외활동으로 인해 기후변화에 보다 민감한 아웃도어 또는 액티브 스포츠웨어의 가벼운 패딩, 입체주머니, 플라스틱 버클과 같은 품목이나 위기상황 대처에 도

움을 주는 디테일을 활용한 디자인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 Fendi는 2014년 봄/여름 컬렉션에서 캐주얼 자켓에 스포츠웨어에서 시접처리 방법으로 주로 쓰이는 웰딩(welding: 무봉제)기법으로 주머니를 부착하고 거드랑이에 공기구멍을 추가하여 통풍이 용이하게 하였다<표 4>.

기능성 소재는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아웃도어 또는 액티브 스포츠웨어에 주로 사용되는 기능적 소재들이 대중화되어 정장이나 캐주얼웨어에 일부 또는 전체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웃도어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는 소재는 고밀도 초경량 소재, 물기와 바람을 막아내는 발수과 방풍 기능, 신축성과 보온성, 항균소취성 소재이다.²⁵⁾ 추위와 폭염 또는 폭설이나 폭우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고 쾌적하게 하기 위해 보온성과 방수성, 통풍성 등을 강화한 소재들이 다양하게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Nicole Farhi는 기본 흰 티셔츠 위에 투명 PVC를 덧대어 방수 기능을 주었고, Dries Van Noten은 바지의 무릎아래에 부분에 광택 있는 기능성소재를 사용하여 폭설과 폭우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또한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온 보온성 향상을 위한 퀴팅이 다양한 디자인으로 보이고 있었으며, 이상고온의 여름 날씨의 해결안으로 통풍 기능을 추가한 독창적인 레이저 커팅 소재와 흡습속건이 뛰어난 메쉬가 스포츠 웨어를 넘어 캐주얼

<표 3> 유형별 자료의 빈도

디자인 유형		빈도(%)	
상위개념	하위개념	빈도(%)	빈도(%)
기능성	기능성 디자인		
	기능성 소재	48(14.0%)	
	기능성 액세서리	11(3.2%)	
레이어드		83(24.2%)	
시즌리스	시즌리스 디자인	85(24.8%)	15(4.4%)
	시즌리스 소재		45(13.1%)
	시즌리스 컬러		25(7.3%)
크로스오버		70(20.4%)	
합계		343 (100%)	

은 물론 정장에 까지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밖에도 시어링, 우븐, 니트 소재에 라미네이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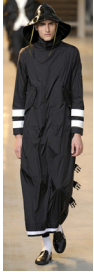











의 코팅을 하여 기존 소재가 가지고 있는 표면감을 살리면서 방수 기능을 추가하기도 하였다<표 5>.

<표 4> 기능성: 기능성 디자인

기능성 디자인						
품목과 디테일에 기능성 부여			아웃도어/스포츠웨어 품목이나 디테일 활용			
						
Dior Homme 2014SS	Dior Homme 2012FW	Neil Barrett 2012FW	Celine 2015FW	Moncler 2013SS	Phillip Lim 2015FW	Fendi 2014SS

(출처: www.firstviewkorea.com)

<표 5> 기능성: 기능성 소재

기능성 소재						
방풍, 방수 소재 전체적 사용				방풍, 방수소재 부분적 사용		
						
Dries Van Noten 2012SS	Moncler 2013SS	Nicole Farhi 2012SS	Antipodium 2012FW	Alexander Wang 2011FW	Lanvin 2014SS	D. V. Noten 2012SS
퀵팅, 레이저 커팅, 메시			시어링, 니트, 우븐소재에 코팅			
						
Lanvin 2013FW	Acne 2014SS	Stella McCartney 2012SS	Aquascutum 2011FW	Phillip Lim 2013FW	Qasimi 2012FW	

(출처: www.firstviewkorea.com)

기능성 액세서리는 팔, 목, 머리, 앞 중심, 어깨와 등과 같이 옷으로 감쌀 때 소외될 수 있는 부분들의 보온기능을 위한 것으로 보여 진다. 주로 가을/겨울 컬렉션에서 제안되어졌지만, 자외선 차단을 위한 팔 토시는 봄/여름 컬렉션에서도 찾아 볼 수 있었고 다양한 컬러와 프린트로 의류와 매치하였다<표 6>.

2) 레이어드 (Layered)

레이어드는 옷을 여러 벌 겹쳐 입음으로써 착용자가 체감기후를 조절 할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인 기후 변화 적응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레이어드는 적게는 2겹에서 많게는 5겹까지 발견할 수 있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동일한 품목 내에서 동일한 소재 또는 상이한 소재를 사용하거나, 상이한 품목을 가지고 동일한 소재 또는 상이한 소재로 레이어드 하는 것이다. Dries Van Noten은 동일한 품목과 동일한 소재를 가지고 바지의 폭과 길이를 조절하여 레이어드 하였다. 동일한 품목 내에서 상이한 소재를 가지고 레이어드 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게 보였는데 Ferragamo, Aquascutum, Kenzo는 소재와 카라의 넓이나 형태, 스커트나 소매의 길이와 함께 소재를 다르게 하여 기후변화에 맞춰 선택하여 입을 수 있도록


하였고, 이러한 변화를 통해 동시에 입었을 경우 보온성은 물론 레이어드만이 줄 수 있는 미를 추구하기도 하였다. 상이한 품목을 동일한 소재로 레이어드 한 경우도 볼 수 있었는데 치마와 바지, 점퍼와 자켓 등을 레이어드 함으로써 보온성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다른 품목에서 오는 이질감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 상이한 품목들을 상이한 소재로 레이어드 한 경우도 있었는데 의외성을 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다소 혼잡함을 피하기 위해 소재와 품목은 다르게 하되 컬러를 통일하는 경우도 있었다. 겹쳐 입음으로 혹독한 기후에 대비한다는 레이어드의 특성 상 주로 가을/겨울 컬렉션에서 보였으나, 봄/여름에는 반투명하게 비치는 소재를 사용하여 비침효과를 주거나 이너웨어와 레이어드 하는 사례도 볼 수 있었다. Costume National은 셔츠와 타이착장 위에 레이어드 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는데 이를 응용한다면 방수기능이 있는 비치는 PVC를 사용하여 포말함을 유지하면서 갑자기 비가 내리는 번덕스러운 날씨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표 7>.

<표 6> 기능성: 기능성 액세서리

기능성 액세서리					
팔 토시			목, 앞중심 어깨 토시		
					
Ralf Simons 2013FW	Aquascutum 2011FW	Kenzo 2014SS	No.21 2015FW	Ter Et Bantine 2011FW	Siviglia 2012FW

(출처: www.firstviewkorea.com)

<표 7> 레이어드

동일한 품목, 동일한 소재		동일한 품목, 상이한 소재					
							
Max Mara 2013FW	Dries Van Noten 2015FW	Ferragamo 2013FW	Nicole Farhi 2012SS	Phillip Lim 2012FW	Aquascutum 2011FW	Kenzo 2013SS	
상이한 품목, 동일한 소재			상이한 품목, 상이한 소재				
							
Moncler 2013FW	Dries Van Noten 2013FW	Lou Dalton 2015FW	Costume National 2012FW	A Detacher 2014FW	Lanvin 2012SS	Oliver Spencer 2015FW	Dior Homme 2012FW
투명 레이어드							
							
Costume National 2011SS	Reed Kraffoff 2013SS	Jil Sander 2012SS	Acne 2011SS				

(출처: www.firstviewkorea.com)

3) 시즌리스 (Season-less)
 시즌리스는 옷의 주요 속성 중 하나인 계절성의 경계가 흐려져서 계절을 초월하여 일 년 내내 착용이

가능한 디자인이다. 시즌리스와 관련해서는 시즌리스 디자인, 시즌리스 소재, 그리고 시즌리스 컬러의 3가지 하위테마로 분류가 가능하였다.

시즌리스 디자인은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하나는 계절 품목의 경계가 흐려진 것이다. 예를 들어 코트는 겨울 품목, 민소매 원피스는 여름 품목이라는 고정관념의 틀을 깨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가벼운 소재의 아우터이다. 아우터의 스타일은 스포츠 점퍼부터 트렌치코트나 케이프까지 다양한데, 가볍고 얇은 소재를 사용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봄, 여름, 가을에서 아우터로 활용되고, 겨울에서 이너로도 활용할 수 있는 시즌리스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표 8>.

시즌리스 소재는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느 쪽이 봄/여름이고 가을/겨울 컬렉션인지 확실하기 어려운 소재들을 사용하는 것이다. 봄/여름에 가을/겨울 소재가 대거 등장하고 있는데, 표면감 있는 알파카, 부클레 등의 울 소재부터 페이크 쉬어링, 퀴팅, 밍크까지 발견할 수 있었다. 가을/겨울에서도 레이스나 성근 니트, 시스루 소재들이 나타났다<표 9>.

시즌리스 컬러도 봄/여름에 다운 톤의 브라운 컬러

<표 8> 시즌리스: 시즌리스 디자인

시즌리스 디자인					
흐려진 계절 품목의 경계		4계절 착용이 가능한 가벼운 아우터			
					
Miu Miu 2014SS	Simon Rocha 2013FW	Jil Sander 2011SS	June J 2014FW	Louis Vuitton 2011SS	Nicole Farhi 2012SS

(출처: www.firstviewkorea.com)

<표 9> 시즌리스: 시즌리스 소재

시즌리스 소재					
SS 컬렉션 소재			FW 컬렉션 소재		
					
Prada 2014SS	Sacai 2015SS	Burberry Prorsum 2011SS	Chloe 2012FW	Marques Almeida 2015FW	Simon Rocha 2013FW

(출처: www.firstviewkorea.com)

러나 올 블랙 컬러를 자주 볼 수 있었다. 특히 가을/겨울에 파스텔컬러는 매우 강하게 나타났다. 시즌리스 컬러와 관련하여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는 화이트 컬러이다, 화이트 컬러는 봄/여름과 가을/겨울 모두 자주 등장하였는데, 워톤과 쿨톤의 미묘한 톤 차이를 활용하여 사계절에 모두 적합하도록 하였다<표 10>.

4) 크로스오버 (Crossover)

크로스오버는 정장, 캐주얼, 스포츠웨어 등 전통적인 스타일에서 벗어나 범주가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스타일을 혼합하여 새로운 디자인을 창출하면서 다양한 기후에 따라 착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여러 스타일들을 한 품목으로 혼합한 경우인데, **Ter Et Bantine**는 패딩과 슬리브리스 셔츠를 결합하였고, **Lanvin**은 윈드브레이커(windbreaker)와 반소매 셔츠를 결합하였다. 다음은 상이한 품목을 함께 스타일링하여 결합하는 방법이다. 정장 자켓의 경우 **Costume National**은 캐주얼 코트와, **Dior Homme**는 후드 집업(hood zip up)과 결합하여 스타일링 하였다. 품목과 소재를 결합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전통적인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이질적인 소재를 결합하여 기후변화에 적응하도록

한 것이다. **Oliver Spencer**는 전형적인 남성 쓰리피스를 방수소재의 패딩으로 하였고, **Phillip Lim** 더플코트를 비닐소재와 결합하여 더플코트 우비를 제안하였다. 한 품목 안에서 두 가지 이상 각기 다른 소재의 결합도 볼 수 있었는데, **Neil Barrett**은 트렌치 코트 소재로 울과 방수소재를 믹스하였다. 마지막 방법은 둘 이상의 품목을 결합한 후, 여러 품목으로 전환이 가능한 트랜스 품이다. **Nicole Farhi**은 지퍼 디테일을 통해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하여 메쉬점퍼가 윈드브레이커로, **Celine**는 소매를 디테처블(detachable)로 제작하여 베스트로 변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표 11>.

2. 패션디자인에서 기후변화 적응의 특징

패션디자인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유형은 상위개념으로 기능성, 레이어드, 시즌리스, 크로스 오버로 분류하였다. 기능성과 시즌리스는 각각 3개의 하위개념으로 나뉘는데, 기능성의 하위개념은 기능성 디자인, 기능성 소재, 기능성 액세서리로, 시즌리스의 하위개념은 시즌리스 디자인, 시즌리스 소재, 시즌리스 컬러이다.

기능성은 스포츠아웃도어에서 기원한 소재와 디

<표 10> 시즌리스: 시즌리스 컬러

시즌리스 컬러							
SS 컬렉션 컬러			FW 컬렉션				
							
Ermenegildo Zegna 2014SS	Miu Miu 2014SS	Tibi 2015SS	Chloe 2012FW	Phillip Lim 2014FW	Miu Miu 2014FW	Victoria Beckham 2015FW	

(출처: www.firstviewkorea.com)

자인, 디테일들이 일상복으로 확장되어 적용되는 특징을 보인다. 먼저, 기후변화 적응력이 우수한 기존 기능성 의류에 패션성을 더해 대중화 되는 움직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일상복 디자인을 기초로 코팅이나 패딩, 웰딩, 어깨토시와 같이 기능과 만나는 접점을 새롭게 발견하는 특징도 있었다.

<표 11> 크로스오버

품목 내 크로스오버						
						
Neil Barrett 2012FW	Sacai 2013FW	Ter Et Bantine 2011FW	Alexander Wang 2011FW	June J 2014FW	Lanvin 2013SS	
품목 간 크로스오버						
						
John Galliano 2014FW	Aquascutum 2011FW	Costume National 2012FW	Jil Sander 2012SS	Kenzo 2015FW	Dior Homme 2012FW	
품목과 소재의 크로스오버		소재 내 크로스오버		트렌스 폼		
						
Oliver Spencer 2015FW	Phillip Lim 2012FW	Ermenegildo Zegna 2014SS	Neil Barrett 2015FW	Moncler 2013SS	Nicole Farhi 2012SS	Celine 2015FW

(출처: www.firstviewkorea.com)

〈표 12〉 패션디자인에서 기후변화 적응의 유형과 특징

디자인 유형		디자인 특징
상위개념	하위개념	
가능성	가능성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이템과 디테일에 가능성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복에서 가능성 발견 아웃도어/스포츠웨어 품목이나 디테일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패딩, 플라스틱 버클, 웰딩 등 적용 가능
	가능성 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능성소재 확대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스타일에 전체적, 부분적 적용 가능 다양한 킬팅, 레이저커팅 디자인 매쉬 확대 적용 일반 소재에 코팅
	가능성 액세서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팔토시, 목토시, 어깨 등 필요한 부분 발견하여 기능과 결합
레이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일한 품목, 동일한 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셔츠+셔츠, 바지+바지 등 - 프로포션 조절 동일한 품목, 상이한 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셔츠+셔츠, 바지+바지 등 - 프로포션 조절, - 텍스처어, 프린트, 칼라 변화 상이한 품목, 동일한 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퍼+자켓, 팬츠+스커트 등 - 프로포션 조절 상이한 품목, 상이한 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퍼+자켓, 팬츠+스커트 등 - 프로포션 조절, - 텍스처어, 프린트, 칼라 변화(또는 일치) 투명 레이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명과 불투명 소재의 중첩과 조화 - 레이어드 대상을 이너웨어로 확장
	시즌리스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흐려진 계절 품목의 경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구성에 변화, - 간절기 아이템 비중 증가 4계절 착용이 가능한 아우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볍고, 얇은 착용감
시즌리스	시즌리스 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봄/여름에 가을/겨울 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킬팅과 퍼, 방모, 모헤어 가을/겨울에 봄/여름 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이스, 쉬폰 봄/여름, 가을/겨울 소재 믹스
	시즌리스 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봄/여름에 다운 톤 가을/겨울에 파스텔 컬러 화이트, 블랙의 경우 워튼과 쿨톤의 조화
크로스 오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품목 내 크로스오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캐주얼, 정장, 스포츠/아웃도어 스타일의 혼합 - 새로운 스타일 창조 품목 간 크로스오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에 따라 자유로운 변화 가능 품목과 소재 크로스오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비, 소방복 등 특수소재 사용복종과 일상복의 혼합 가능 소재 내 크로스오버 트렌스 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테처블, 리버시블 등
	기후변화 적응	보온, 통풍, 방투습, 방풍, 위기상황 대처, 체온조절, 자외선차단 등
기후변화 현상	이상고온, 이상저온, 한파, 폭염, 폭설, 급속한 기후변화 등	

이러한 특징은 앞에서 나타난 사례 외에도 디자인, 소재, 액세서리 등에 앞으로도 무한한 개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레이어드는 동일한 품목과 소재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레이어드 되는 품목들의 비율을, 품목이나 소재가 다를 경우에는 비율과 소재의 컬러 및 텍스처 대비를 통하여 계절과 기후에 따른 용도를 확장하는 동시에 자유로우면서도 완벽하게 계산된 스타일링을 표현 할 수 있다. 그리고 간절기나 가을/겨울뿐 아니라 이너웨어와 비치는 소재를 사용한 여름 레이어드도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시즌리스를 보면 봄/여름은 밝은 컬러, 가벼운 소재의 반팔 또는 민소매, 가을/겨울은 어두운 컬러, 두꺼운 소재의 긴 소매라는 고정적인 공식에 변화의 조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한 품목에서 메쉬와 모피와 같은 봄/여름 소재와 가을/겨울 소재를 함께 사용하여 시즌을 초월한 사례도 있었다. 크로스 오버는 전통적인 스타일에서 벗어나 스타일이 하나의 품목 또는 스타일링에서 혼재함으로써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하고 이러한 스타일은 다양한 기후에 유연하게 착장이 가능하다고 보인다. 이러한 스타일의 혼재는 방수가 뛰어난 우비와 내열이 뛰어난 소방복 등 특수복 소재와 일상복 디자인의 크로스오버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한다. 또한 외부 환경에 따라 내피 또는 의복의 일부분을 탈부착하거나, 화창한 날씨와 눈 또는 비오는 날씨에 모두 입을 수 있도록 안감과 겉감의 소재를 달리한 리버시블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응 디자인이 가능하다. 이상으로 살펴본 패션디자인에서 기후변화 적응의 유형과 방법을 기초로 특징을 도출하면 <표 12>와 같다.

V. 결론 및 제언

이상기온, 한파와 폭염, 폭설과 폭우와 같은 기후변화 현상은 패션디자인에 있어 새로운 디자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패션디자인의 유형과 특징을 분석하여 패션디자인에 있어서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개념적 기초를 마련하고, 패션상품 개발 시 기후변화 적응방법과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패션디자인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유형은 상위개념으로 기능성, 레이어드, 시즌리스, 크로스 오버로 분류하였다. 기능성과 시즌리스는 각각 3개의 하위개념으로 나뉘는데, 기능성의 하위개념은 기능성 디자인, 기능성 소재, 기능성 액세서리로, 시즌리스의 하위개념은 시즌리스 디자인, 시즌리스 소재, 시즌리스 컬러이다. 각 유형별로 디자인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기능성은 스포츠나 아웃도어의 기능성 디자인이나 소재를 일반 의복에까지 확대하여 적용하고, 레이어드는 품목과 소재를 자유롭게 활용하여 다양한 기후에 맞춰 활용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시즌리스는 의복이 가지고 있는 주요한 특징 중 하나인 시즌성을 잠시 접어두고 시즌을 초월하여 입을 수 있도록 하고, 크로스 오버는 품목과 스타일을 믹스하여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디자인 특징들은 혹한과 폭우와 같은 특정한 기후에 적응력을 높이는 동시에 다양한 환경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한 디자인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는 선행연구 결과를 분석의 틀로 활용하되 최근 5년간 컬렉션 자료 분석과정을 거쳐 보다 정교한 개념적 틀을 제시한 것으로 패션기업의 디자인 아이디어를 위한 데이터베이스와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실증자료로 사용한 컬렉션 디자인들은 사용한 소재의 기능에 대한 과학적 결과를 모르는 상태에서 외관을 보고 추정한 것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소재의 역할은 패션디자인이 기후변화에 적응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므로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의류소재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이번 연구는 패션디자인을 통한 기후변화 적응 방법만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 패션산업이 해야 할 일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그 중 하나가 선행연구에서도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되었던 서스테이너블의 철학을 가진 패션디자인이다. 이는 단지 외관에서 보여 지는 디자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원, 부자재의 생산부터 의류봉제, 그리고 물류의 이동 이르기까지 기후변화 위협요인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감소하기 위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노력해야 하는지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하나의 예로 파타고니아의 탄소발자국이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패션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내에서도 이를 위한 기준과 실천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패션기업이 상품 디자인을 통해 기후변화 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고찰하였다. 하지만 기후변화는 수요자와 공급자 그리고 이를 조정하는 정부 모두가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상생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패션기업은 기후변화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받아들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정부는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을 실천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식 있는 소비를 정착할 수 있도록 소비자 교육도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기후변화행동연구소 (2012). 2011/2012 기후변화 알아두어야 할 10가지. 자료검색일 2014. 12. 10. <http://www.climateaction.re.kr/>
- 2)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2015). 자료검색일 2015. 5. 20. http://ccas.kei.re.kr/climate_change/menu3_1.do
- 3) 세계기후변화 종합상황실 (2015) 자료검색일 2015. 5. 16. <http://www.gccsr.net/Climate/CBRead.asp?No=176>
- 4) 기후변화행동연구소 (2011). 기후변화 기업이 알아두어야 할 6가지. 자료검색일 2015. 5. 20. http://climateaction.re.kr/index.php?document_srl=18106&mid=news01
- 5) 전의찬. (2015. 5. 30). 이제는 기후변화 적응이다, 에너지 경제, 자료검색일 2015. 6. 27.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137193>
- 6) 김태환 (2014. 12. 2). ‘패션산업’까지 바꿔놓는 기후변화, 온테이 웨더, 자료검색일 2015. 6. 27. http://www.onkweather.com/bbs/board.php?bo_table=economy1&wr_id=614&page=3
- 7) 기후변화행동연구소 (2012). 기후변화 사망자 매년 500만 명, 피해액은 우리나라 1년 GDP보다 많아, 자료검색일 2014. 12. 10. <http://www.climateaction.re.kr/>
- 8)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2015). 앞의 책.
- 9) 한국기후 환경 네트워크 (2012). 세계적인 핫 이슈 기후변화, 어디까지 이해하시나요? 자료검색일 2014. 11. 16. <http://greenstartkorea.tistory.com/269#recentTrackback>
- 10) 삼성경제연구소 (2010). 시장 메커니즘으로 관리하는 날씨와 기후변화 위험. 자료검색일 2014. 12. 03. <http://www.seri.org>
- 11) 현윤진, 김정선, 정진욱, 윤시문, 이문수 (2015). 기후변화 및 식품 관련 뉴스기사의 텍스트 마이닝.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26(2), pp.419-427.
- 12) 정책브리핑 (2014). IPCC,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에 관한 보고서 승인. 자료검색일 2015. 2. 15.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5953641>
- 13) 정연만 (2014). 기후변화 전망 및 대응 방향, 한국행정학회 통계학술발표논문집, pp.1010-1061.
- 14) IPCC (2007). IPCC Fourth Assessment Report: Climate Change 2007: Mitigation, adaptation and climate change impacts, 자료검색일 2015. 6. 27. http://www.ipcc.ch/publications_and_data/ar4/wg3/en/ch2s2-5-2.html
http://www.ipcc.ch/publications_and_data/ar4/wg3/en/ch2s2-5-2.html
- 15)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2015). 앞의 책.
- 16) 정찬영, 김남조, 이훈 (2015). 지역축제의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전략 연구. 호텔관광연구, 17(1), pp. 248-267.
- 17) 정연만 (2014). 앞의 책. pp.1010-1061.
- 18) Kim, E. & Johnson, K. (2007). The U.S. Apparel Industry futuring with undergraduate students in apparel majors. Clothing & Textiles Research Journal, 25(4), pp.283-306.
- 19) Jacob, J. (2007). Surveying the present and an imagined future: The quest for a bright future in the textiles and apparel professions. Clothing & Textiles Research Journal, 25(4), pp.349-374.
- 20) 이현영, 박혜원 (2009). 다기능 패션디자인에 관한 연구 -기후변화 및 환경인식을 중심으로-, 패션비즈니스학회지, 13(2), pp.123-135.
- 21) 배정민 (2008, 4). 기후변화에 따른 패션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 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p.221.
- 22) 손미영 (2012).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on the fashion industry in Korea, Risureikan Journal of Asia Pacific Studies, 31, pp.56-65.
- 23) 이민선 (2011). 기후변화에 따른 남성셔츠 디자인 개발 사례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7(4), pp.399-408.

- 24) 배정민 (2011). 기후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아웃도어 웨어 디자인에 관한 연구 -2000년 이후 컬렉션에서 발표된 디자인을 중심으로-, 복식, 61(7), pp.101-109.
- 25) 김인혜, 하지수 (2012). 국내 아웃도어웨어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12(1), pp.93-110.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Fashion Design Adapting to Climate Change

Jang, Nam Kyung

Associate Professor, Major in Textile & Fashion Design, Hansei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ablish a conceptual framework for fashion design adapting to a climate change through analyzing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fashion design adapting to a climate change. Thus this study attempted to provide a new vision for climate- adapting method and possibility during the fashion product development. For the theoretical background, the response to a climate change as well as a concept and current state, and literature related to fashion design considering a climate change were reviewed. For the positive study, ready-to-wear presented at New York, Milan, Paris, and London collection in the last 5 years (2011 S/S-2015 F/W) were examined. 343 fashion designs estimated as adapting to a climate change were selected for data and analyzed.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fashion design adapting climate change were derived. Four main themes were functionality, layered, season-less, and crossover. The themes of functionality and season-less had three sub-themes respectively. The sub-themes of functionality were functional design, functional material, and functional accessory. The sub-themes of season-less were season-less design, season-less material, and season-less color. In short, as the characteristics, the functionality may be said that material, design, and details originated in sports/ outdoor wear became popular in daily wear. Through layered, the contrasted proportion and material' color and texture of one more items helped to extend the usage according to the weather and climate. Designs which are free from the application of seasonal color, material and design were observed. The crossover designs that many styles were mixed in one item or style were flexible in wearing with various climates. Study implications and future research avenues in reference to this study findings and limitations were also discussed.

Keyword : climate change, climate change fashion, climate change adaption, fashion design adapting to climate

